

평화와 화합의 한일 관계를 위한 3박 4일

한일 미래 포럼 참가자 홍화수

지난 6월 2일, 나는 어느 때처럼 방학 때 할 만한 대외활동을 찾기 위해 링커리어 사이트를 뒤적거리고 있었다. 그때 내 눈에 띈 것은 '제11회 한일 미래 포럼'이라는 제목의 게시글이었다. 날짜를 확인해보니 마침 갈 수 있었고, 가격도 해외에서 진행되는 것치고 그렇게 비싸지 않았기에 부모님의 허락을 받아 신청하였다. 짧은 날에만 할 수 있는 소중한 경험일 것이라고 생각했고, 또 글로벌한 안목을 갖는 것은 인생 전체에 있어 큰 자산이 될 수 있을 것이라 생각했기 때문이었다. 그렇게 학기를 마치고 8월 13일을 기다렸다.

하지만 7월 초, 한일 관계는 파국으로 치달았다. 일본 기업들이 강제 징용 노동자에 대한 배상을 해야한다는 대법원 판결이 최종 선고되었고, 아베는 한국을 화이트 리스트에서 배제함으로써 양국 관계는 65년 이래 그 어느 때보다도 악화되었다. 우리 국민들은 분노했고, 일본을 몰아내기 위해 자발적인 불매 운동을 전개했다. 이러한 상황에서, 나는 고민했다. '과연 이 시국에 일본에 가는 것이 맞을까?'라고 말이다. 실제로 한국인 참가자들이 모인 단독방에는 일부 나가는 한국인들도 분명히 있었다. 아버지는 가는 것이 좋을 것이라고 말하셨지만, 어머니는 걱정된다며 가지 않을 것을 권하기도 하셨다. 나는 오랫동안 마음 고생을 했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는 가기로 결심했다. 그 이유는 다음과 같다.

1. 비록 양측이 대립하고 있는 상황이지만, 일본은 어찌되었든 우리의 우방이고, 한일 관계가 악화될수록 반사 이익을 보는 것은 우리와 대립하는 국가들 뿐이다. 우리끼리 싸우는 것은 분열을 가져올 뿐이다.
2. 감정을 앞세운 싸움보다는 대화와 상호간의 이해를 통해 갈등을 해결하는 것이 최선이기 때문이다. 손자병법 제1장에서 이르길, 싸워서 이기는 것은 최선이 아니요, 싸우지 않고 이기는 것이 최선 중의 최선이라고 했다. 일본에 대한 비난으로 감정의 골을 깊게 만드는 것보단, 서로에 대한 이해를

깊게 하고, 일본인들에게 한국에 대한 좋은 인상을 심어주고 서로 윈윈(win-win)할 수 있는 길을 찾아보는 것이 진정 국익을 위한 길이라고 생각했다.

3. 개인적으로도, 외국에 나가서 대학생들과 토론을 하는 것은 분명 흔치않은 귀중한 경험이 될 것이라고 생각했다. 이러한 경험을 높이신 분들이 벌여놓은 갈등 때문에 스스로 견어차는 것은 어리석은 일이라고 여겼다.

그래서 나는 한국을 뒤로 하고 출국길에 올랐다.



항공기 안에서 한 컷

요나고 공항에 도착하니, 벌써부터 취재진들이 우리를 기다리고 있었다. 송영 버스에 앉아 밖을 바라보니, 일본식 건물들과 한국에서는 볼 수 없는 넓은 논밭이 눈에 들어왔다. 내가 일본에 오긴 왔구나라는 생각이 들었다.

첫날에는 시설 관계자분에게 주의사항을 들었다. 그런데 주의사항이 정말 세세한 부분까지 규정되어 있어 놀랐다. 한국이라면 ‘쓰레기는 아무데나 버리지 말고, 이불은 가기 전에 꼭 정리해주세요.’ 정

도에서 끝났을텐데, 일본은 어떤 이불은 이렇게 개고, 다른 이불은 이렇게 개고, 그 이불이 어느 방향으로 향하게 놓아야 하는 지까지 규정하고 이를 지킬 것을 요구했다. 생각해보면 일본쪽이 맞다. 단순히 정리를 하라고만 하면 어떻게 정리해야하는지 사람들은 저마다 다른 방식으로 생각을 할 것이다. 누군가는 완벽하게 개어서 접는 것을 정리라고 여길 수도 있고, 누군가는 그냥 벽장 안에 대충 쑤셔넣어도 정리라고 생각할 수 있다. 새삼 일본의 세심함에 감탄하면서도, 이를 한국도 배워야 한다는 생각이 강하게 들었다.

첫날의 간단한 토론과 목욕이 끝나고, 방에 들어왔다. 말로만 듣던 와시츠(和室)가 나를 기다리고 있었다. 룸메이트였던 이와이 쇼고 군과 우영이와 함께 이불을 폈다. 이불이 무척 폭신평신했어서 좋았다. 그런데 갑자기 쇼고 군이 옆방에 가서 술자리에 참석하자고 제안했다. 옆방으로 가보니 한국인 참가자들과 일본인 참가자들이 함께 어우러져 술을 마시고 있었다. 본래 술을 반입하는 것은 금지되어 있지만, 한국인 참가자 중 한 분이 몰래 맥주를 가지고 와서 과자와 함께 술자리를 만든 것이었다. 도해(渡海)의 여파로 살짝 피곤하기는 했지만, 기쁜 마음으로 술을 들었다. 일본어는 아직 부족했지만, 다행히 어느 정도는 알아들을 수 있었고, 또 나도 일본어로 조금은 말할 수 있었다. 합석자 중 일본인 료마 군은 정말 한국인 같았다. 만약 이름을 안 보고 한국어를 쓰는 모습만 보았다면 영락없는 한국인일 거라고 생각했을지도 모른다. 한국인 같으면서도 무척 유머러스해서, 술자리의 분위기가 참 재미있었다. 그렇게 아이스 브레이킹을 끝내고 다음 날을 기다리며 잠이 들었다.



룸메이트였던 쇼고와 우영이. 이 사진은 쇼고의 업어주기 미션과 우영이의 사진찍기 미션을 동시에 성공시켰다. 서로가 서로의 마니또였으니까!

다음 날, 아침을 먹은 다음 본격적인 토론에 들어가기 전에, 이즈모다이샤(出雲大社)서 필드 워크를 했다. 왜인지 모르겠지만 주변의 음식점들은 온통 소바집들이었고, 또 토끼와 관련된 장식이나 조형물이 많았다. 일본에 대해서 거의 통달하신 상혁이 형이 이 지역은 '이나바의 흰토끼'라는 전설이 내려져오는 지역이기 때문에 이런 토끼 형상의 물건이 많은 것이라고 설명해주셨다. 나중에 찾아보니, 이나바의 흰토끼의 전설은 한자 문화권에서 비슷비슷한 형태로 전해져 내려오는 전설이라고 한다. 다만 흰토끼가 속여서 이용해먹는 대상이 일본(이나바의 흰토끼)은 상어, 한국(전남 여수 오동도의 토끼전설)은 거북이, 중국(고금소총에 기록된 교토탈화 설화)은 자라, 베트남(기록의 출처나 지역명은 알 수 없었음)은 악어이고, 일본에서는 털이 뜯겨버린 토끼가 똥구는 풀이 부들이지만, 한국은 역새풀이라고 한다. 네 나라 모두 한자 문화권임을 감안하면 역시 같은 문화권에서는 비슷한 전설이 내려온다는 사실을 알 수 있었다.



세 마리의 토끼들. 일본의 삼원(三猿)이 묘하게 오버랩 되었다. 우리나라에서도 삼족오(三足鳥)나, 건국신화의 천부인(天符印) 등 숫자 3이 유독 특별한 의미를 갖는다. 우리나라에서는 '1은 양(陽)을 의미하고, 2는 음(陰)을 의미하니, 1과 2가 더해진 3은 완전함을 의미하기에 특별하다.'라고 가르친다만, 일본도 비슷한 의미일지 궁금해졌다.

필드 워크를 마친 뒤, 본격적인 토론에 돌입했다. 노트북을 가져오지 않아서, 능동적인 자료조사보다는 발표의 큰 틀을 짜고, 필요한 자료를 부탁하는 방식으로 밖에 일을 할 수가 없었다. 대신 한국에서 미리 조사해 온 내용이 있었기에, 사키코 씨에게 노트북을 빌려서 내가 조사한 내용을 모두에게 보여주었다. 나는 대부분 이정도는 조사해서 왔으리라 생각했지만, 다들 생각보다 조사를 많이 해오지는 않은 것 같았다. 노트북은 없었지만 그나마 공헌을 할 수 있어 다행이라는 생각을 했다.

주제가 관광이었지만 불매운동 이야기를 안할 수가 없어서, 초반에는 정치, 경제적인 부분의 비중이 컸다. 하지만 관계의 개선에 대한 이야기보단 관광 이야기를 좀 더 많이 해야하지 않겠느냐는 유카 씨의 제안에 후반부터는 실질적인 관광 개선안을 찾기 시작했다. 나는 바가지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가격 공시 어플리케이션을 만들자고 제안했는데, 그것이 아예 관광 리뷰 앱으로 바뀌어서 호응을 얻어 버렸다. 물론 여행 리뷰 안에 가격 정보가 포함되어 있었으니 아무래도 좋지만 말이다.

둘째 날 밤에도 역시 술자리가 열렸지만, TBS 방송사에서 나눠준 양케이트 응답과 토론의 잔업을 처리하기 바빠서 술자리에는 사실상 참석하지 못하고 그저 가져간 과자만 먹고 잠들었다. 그제 1시

30분이어서 다음날 일어나기가 무척 힘이 들었다.

셋째 날에는 7시 30분쯤에 일어났다. 너무너무 졸렸지만, 아침은 꼭 먹어야하는 타입이므로 30분 안에 아침을 먹고 토론을 시작하리라는 심정으로 비틀대며 식당으로 가서 밥을 먹었다. 그날은 발표에 대한 마무리를 하는 날이었는데, 피곤해서 그런지 파트너였던 리사 씨와 의사소통이 원활하지 않았다. 그래도 어떻게든 대본과 자료 조사를 마친 뒤, 발표를 했다. 우리 관광팀은 종료 시간이 2시 까지인줄 알고 있었는데, 실제로는 1시라서 발표를 조금 지연시킨 뒤 급하게 완성을 시키고 발표를 듣게 되었다. 다른 조의 발표 내용은 모두 흥미진진했다. 우리나라 인터넷에서 장난스럽게 사용되는 한본어(韓本語)가 제일 조선인들 사이에서는 재일어라는 이름으로 실제로 사용되고 있었다. 전혀 모르던 사실이었기에 무척 집중해서 들었던 것 같다. 강제 징용 문제에서도 일본이 이러한 근현대 역사를 잘 배우지 않고 있다는 사실을 새로 알게 되었으며, 우리나라도 김대중-오부치 선언과 같은 현대 외교사 등을 가르쳐야 할 것 같다는 생각을 새로 하게 되었다. 페미니즘에 대해서는 내용 그 자체보다는, 일본의 페미니즘 현주소를 알고 싶었다. 그래서 질문을 해보니, 우리나라와 비슷비슷한 상황인 것 같았다. 「82년생 김지영」이 크게 인기를 얻어 베스트 셀러가 되고, 근본주의 페미니즘 사상에 경도된 이들이 그녀들만의 커뮤니티 사이트를 만들고, 이 사이트를 구심점 삼아 사회적인 물의를 일으키거나, 페미니즘이라는 주제 자체가 대화의 화제에 오르면 갑자기 분위기가 어색해지는 것까지 닮아 있었다. 역시 일본은 한국과 가장 비슷한 나라라는 생각이 들었다.

마지막으로 우리 팀이 발표를 할 때는 조원 모두가 다같이 했는데, 발표를 하지 않는 나머지 조원들은 보이지 않는 무대 옆쪽에서 대기하는 것으로 했다. 그런데 여기에 옆으로 기울어진 일본어 단어 연습판이 보였다. 예를 들어 사과라면 사과 그림 밑에 ○んご라고 쓰여있고 ○에 들어갈 히라가나를 맞추는 식이었는데, 아오리 사과라고 생각했던 그림이 ○し라고 쓰여져 있기에 이게 뭐냐고 리사 씨에게 물어보니 なし, 배라고 하셨다. 감사하다고 한 뒤 나머지를 살펴보면, 과자 같은 것이 그려져 있고 그 아래 ○んべ이라고 쓰여진 것은 도무지 유추가 되지 않았다. 그래서 리사씨에게 다시 한번 물어보니, '센베이'라고 하셨다. 나시가 배인 것은 알고 있었고, 단지 그림이 배라는 것을 알아보지 못했을 뿐인 아까와 다르게, 나는 센베이라는 말을 처음 들었기에 도무지 그것이 무엇인지

를 종잡을 수가 없었다. 이때 한국인 참가자 수민이가 센베이가 전병이라는 사실을 알려주었고, 그 제서야 나는 그 과자 비스무리한 것이 전병임을 알아챌 수 있었다. 단어판에 있는 단어 전부를 알고 발표에 임하니 속이 시원했다.



이렇게만 놓여 있으니 '센베이'라는 단어를 모르는 입장에서 알기 힘든 것도 무리는 아니었다고 생각한다.

발표를 마치는데 상혁이 형이 내 목소리가 좋다고 칭찬을 해주셨다. 한국 속담에 '칭찬은 고래도 춤추게 한다.'라는 말이 있다. 감사하고 기분이 좋으면서도 한편으로는 '한국도 먼저 일본을 칭찬해주고 기를 살려줌으로써 화합과 연대의 길을 제안하는 것은 어떨까..'하는 생각이 들었다.

발표가 끝난 다음에 바비큐 파티를 했다. 태풍의 영향으로 밖에서 파티를 하지는 못했고, 실내에서 했다. 아쉬운 마음도 들었지만, 한편으로는 실내가 가장 안전할테니 걱정이 없어 다행이라는 생각도 들었다. 사실 본격적인 태풍은 어제 밤이었고, 이날은 태풍의 기세가 한풀 꺾인 상태였겠지만 말이다. 이 사실을 어떻게 아느냐, 지난 밤 짧은 시간이었지만 태풍을 직접 피부로 느껴봤다. 쇼고 군과 함께 말이다. 둘째날 저녁, 쇼고 군이 목욕탕에 갈 시간에 편의점에 가자고 제안했다. 밤이었고, 목욕을 하고 싶었지만, 쇼고 군과 함께 편의점에 가는 것도 좋은 추억일 것이라고 생각해서 쇼고 군과 함께 밖으로 나갔다. 그런데 바람의 기세가 엄청났고, 더군다나 빗줄기까지 조금씩 내리고 있었다. 이런 일이 있었기에 이미 어제 밤 태풍이 지나갔으리라 짐작을 했던 것이다. 아니나 다를까 파티를 마치고 방으로 돌아가는 길에 창밖을 보니, 비는 오지 않고 있었다.

바비큐 파티가 끝나고 곧 마니또 공개의 시간이 되었다. 내 마니또는 데라다 아야노 씨였는데, 미션이 'SNS에 (함께 찍은 사진을) 올리기'였다. 다행히 부모님이 일본 친구와 찍은 사진을 보고 싶어하신다는 핑계로 함께 사진을 찍었기에 미션은 클리어한 상태였다. 다만 SNS에 올린다는 허락은 받지 않았기에 초상권 보호 차원에서 비공개로 올리긴 했다. 마니또 선물 교환의 시간이 되었고, 나는 계속 기대했지만 늦게도록 나의 마니또는 나오지 않았다. 결국 마지막쯤 되어서야 공개가 되었다. 아야노씨는 내가 준비한 한국 전통 공예품인 부채와 내가 직접 쓴 서예화를 받았고, 나를 마니또로 하셨던 사야카 씨는 하얀 꽃이 달린 하늘색 주머니에 과자 등 여러 가지를 담아서 주셨다. 사야카 씨의 미션은 '사랑 이야기 하기'였는데, 듣자마자 성공이라는 사실을 알 수 있었다. 아까 바비큐 파티에서 처음 뵈었는데, 뜬금없이 '여자친구 있어요?'하고 물어셔서 '이게 초면에 나올 질문인가? 혹시 나를 좋아하시나?(...)' 같은 생각을 한 적이 있기 때문이었다. 사실은 미션을 위한 질문이었던 것, '그럼 그렇지'라고 생각했지만, 한편으로는 왜 입맛이 씹쓸한지 알 수 없었다.



아야노씨와 한 컷.



내가 준비한 선물을 아야노 씨에게 주는 모습.



사야카 씨가 선물을 주시는 모습. 임진왜란 당시 조선 침략의 선봉장으로 왔다가 나중에 조선에 투항하여 항왜(降倭)라는 칭호를 받고 조선에 귀화한 김충선(金忠善) 씨의 원래 이름이 사야카였다. 한국인들 사이에서는 꽤 유명한 이야기라서, 나중에 공항에 돌아갈 때 나에게 선물을 준 마니또의 이름이 '사야카'였다고 말하자 상혁이 형은 바로 "김충선?"하고 웃으셨다.

마지막 날 밤, 찢은 다음 술자리가 열리는 313호로 갔는데, 거의 모든 참가자들이 그 방에 모여있었다. 나랑 우영이, 현수가 합류하려고 하자, 그 방의 관리(?)를 하고 계시던 인서 형이 사람이 너무 많아 314호에 사람을 반 정도는 보내야겠다면서 나와 우영이, 수민이를 314호로 보냈다. 그렇게 3명의 심야토크(深夜talk)가 시작되었다. 이야기를 하던 도중 분위기가 무르익어 자신이 겪은 실화를 바탕으로 한 무서운 이야기를 하게 되었는데, 귀신 이야기를 듣다가 갑자기 느낌이 썰렸다. 갑자기 주변 공기가 차가워졌고, 왠지 밖을 향해 조금 열려있는 창문 사이에서 무언가의 시선이 느껴지는 듯했다. 분명 눈을 찢고 바라보아도 아무 것도 없었는데, 기분 탓이었는지 자꾸 불길한 무언가가 나를 지켜보고 있는 듯한 느낌을 떨칠 수가 없었다. 나는 갑자기 두려운 생각이 들어서 함께 이야기하고 있던 두 명이 앉아 있는 곳의 양 옆, 그러니까 탁자의 대각선 방향에 앉아 창문으로부터 최대한 멀어지고, 두 명과 최대한 가까운 곳에 자리를 잡았다. 우영이와 수민이는 왜 내가 자리를 옮기는 건지 영문도 모르고 이야기를 계속했는데, 내가 중간에 “내가 앉아있던 자리, 에어컨이 바람이 직빵(정면)으로 들어오나?”라고 묻자 수민이가 그쪽으로 손을 대보고 그런 것 같다고 대답했다. 하지만 그렇다고 해도 이상한 느낌은 사라지지 않았다. 에어컨 바람 때문이라면 처음부터 차가운 기운이 느껴졌어야 하거니와, 내가 그때 느낀 것은 차가운 기운이 나를 감싸는 듯한, 무언가의 의도가 들어 있는 것만 같은 한기(寒氣)였다. 다행히도 그 날은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았지만, 확실히 일본에서 괴담 이야기를 할 때는 입조심을 해야겠다는 생각이 들었다.

그리고 드디어 마지막 날이 밝았다. 마지막날에는 짐을 정리하고, 송영 버스의 시간을 맞추기 위해 정신이 없었다. 인스타를 전날 시작했기에, 서둘러 사람들과 인스타 친추를 걸고 작별 인사를 했다. 버스가 출발하자, 송영 버스에 타지 않는 참가자분들이 모두 나와 우리를 송별해주셨다. 시설 관계자분들도 현의 트레이드 마크인 요시다 군이 그려진 천을 높이 들고 다음에 올 날을 기약해주셨다.



아쉬운 이별의 시간. 파란색 천 옆에 빨간색의 천도 있었는데 교묘하게 커튼에 가려버렸다.

한국에 도착하여 다시 여느 때와 같은 일상으로 복귀하고, 이 글을 쓰는 지금의 시점에서 보면, 그때 이 포럼을 취소하지 않아 참 다행이었다고 말하고 싶다. 한국에 있었다면 하지 못했을 귀중한 경험을 하였기 때문이다. 이제 나는 더 이상 예전과 같이 일본을 바라보지 않게 되었다. 한국에서만 바라보는 일본과, 실제로 만난 일본은 차이가 컸다. 한국 언론에서는 일본을 군국주의의 부활을 꿈꾸는 악마들과 같이 묘사를 하는 경우도 종종 있지만, 내가 만난 일본인들은 그런 느낌이 아니었다. 오히려 일본의 언론과 한국의 언론이 보도하는 내용이 조금 차이가 있음을 알게 되었고, 선량한 민중들은 그에 이리저리 휘둘리고 있는 것만 같은 느낌을 강하게 받았다. 그리고 한국과 일본이 서로 대립하지 말고 화합하며 상생하는 미래의 동아시아를 꿈꾸게 되었다. 그러한 날이 올 때까지, 나는 나의 위치에서 내가 할 수 있는 일에 최선을 다할 것이다.